

총련의 오랜 일군들에게 영생의 삶을 안겨주시어

공화국의 역사는 수령과 전사들 사이의 가장 뜨겁고 진실한 동지적사랑과 믿음으로 시작되고 그 힘으로 전진해온 위대한 역사이다.

그 자랑차고 불멸할 로정은 총련의 일군들을 자애로운 안목에 안아 영생의 언덕에 내세워 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한순간도 뜨거운 사랑을 전하는 감동깊은 이야기들이 무수히 새겨져 있다.

주제 84(1995)년 7월 8일 어머니수령님의 서거 1돐에 즈음하여 조국에 온 총련추모대표단의 한 성원이었던 박정현 제1분대 조선민주주의동맹 상임교원이 갑자기 심장발작으로 병원에 실려 갔을 때였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총련의 오랜 간부를 기어이 살려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화국의 윤희한 의료진을 무어주시고 그를 생생시키기 위한 긴장한 치료전투를 벌려드록 해주셨다. 그리고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여러 차례 전화로 알려주시면서 어떻게 하나 그를 생생시키려고 마음쓰셨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가 애석하게도 심장의 고동을 멈추었다는 비보를 받으시고는 갈리신 음성으로 화환을 보내주며 그를

심리애국렬사릉에 안치하고 신문 《민주조선》과 《통일신보》에 부고를 내도록 하여야겠다고 고시하시었다.

다음날 장의식장에 나오신 그이께서는 비통한 마음으로 고인의 얼굴을 더욱더 바라보시다가 박정현상임교원은 해방직후부터 바람세찬 일본땅에서 일을 많이 한 훌륭한 동무였다고, 애국애족의 한길에서 참된 삶을 꽃피운 그는 한생의 총화를 아주 훌륭하고 깨끗하게 지은 총련일군이었고 어머니였다고 하시면서 그의 한생을 값높이 평가해주시었다.

그러시고는 그의 자식들에게 한생을 어머니수령님께 충실하여 온 훌륭한 어머니를 모시고있었다는 긍지감을 가지고 일을 잘하라고 하시면서 상임교원의 부탁대로 자신께서 잘 돌봐주겠다고 뜨겁게 고시하시었다.

떠나간 총련일군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져주시고 빛내여주시는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에 고인의 유가족들과 총련의 책임일군들은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랑의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조국으로부터 떠나면 이역에서 숨진 한 동료교육자의 문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그에게 공화국어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하도록 하시고 유가족이 조국에 기증한 박정현동포의 도서 3000부를 인민대학습당에 《박정현선생의 문고》라는 이름으로 특별히 장식하도록 해주셨을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에게 기념품도 보내주시었다.

한 평범한 해외동포교육자의 생전의 소망까지 헤아리시어 주실 수 있는 은정을 다 돌려주시고 꺼질 줄 모르는 영원한 삶을 안겨주시어 한없이 고결하고 뜨거운 사랑.

이제 정정 혁명적의리의 최고화신, 인간중의 인간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동지애의 세계였으며 만사함을 격동시킨 그날의 이야기는 오늘도 총련일군들과 해외동포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다.

어찌 이대뿐이랴. 혁명전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이었던 로체호, 총련 조선대학교 학장이었던 남시우를 비롯한 수많은 총련일군들이 영생의 언덕에서 삶을 빛내고있으며 오늘도 총련일군들은 그 품에 운명도 미래도 전적으로 맡기며 애국애족의 길을 뜻깊이 걸어가고 있다.

최진옥

민족의 단합과 번영을 위한 길에서

인생말년에 삶의 바른길을 찾은 해외동포인사 (1)



●림명성선생

한 인간의 인생행로에서 출발의 방향각을 어떻게 정하는가 하는것은 그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식민지민족의 운명을 태줄처럼 감고 태어난 불우한 수난자의 한사람이었던 림명성 선생의 인생행로가 이를 실증해주고있다.

하다면 림명성선생은 어떻게 한생을 방황하다 인생말년에야 민족단합의 거창한 대하에 합류하여 참된 삶을 누리게 되었는가.

비록 늦게나마 민족단합을 위한 애국의 길에 뜻을 심고 심신을 바쳐온 선생의 삶의 체취와 훈점은 오늘도 겨레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1930년대초에 선생은 미국류학 길에 올랐고 미국 라파에프대학에 들어가 공부하게 되었다.

당시 그 대학에 동양인이라고는 선생 한사람뿐이었다. 선생은 학업성적이 뛰어나 총명하기로 이름났으며 언설도 잘하여 학교적으로 용변이라는 소문이 자자했다.

사실 선생은 반일의식은 강했지만 활동방략에 대해서는 못했다. 그러다나니 모데 감독에 좌왕우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는 어느 정치인을 위해 일한다면 조선독립에 유익한 일을 할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그런 속에 나름대로의 활동을 모색해오던 선생은 미국 전쟁공보 및 정문성원으로 정부에 고용되었다. 여기서 선생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조선문제에 대하여 화제를 올리고 지지자를 모으려고 했다.

하여 얼마후 선생의 발기하에 조선을 완전히 독립시켜야 한다는 선전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조선프린트스튜던트협회》가 조직되었다.

선생은 여기에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에드워드 코린과 같이 자유주의적지성인들에게 조선독립을 지지해줄것을 요청하고 이들과 함께 조선학생들을 위한 교육재단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이 나날에 선생은 자신의 반려자이자 동지였던 리보배를 만났다. 선생은 비록 미국땅에서 살지만 자녀들이 조선사람이라는것을 잊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해방이 되자 선생은 미군정사령관 하지의 수석고문으로 귀국하는 서재필의 서기로 남조선에 돌아왔다.

선생의 마음속에는 미군정이 실시되는 남조선땅에서 민족을 위해 마음껏 정치활동을 해볼 야심찬 결심이 내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남조선은 정의와 량심이 무참히 짓밟히는 인간지성의 불모지라는것을 여실히 드러내고있었다.

하여 선생은 1949년 다시 미국으로의 이민의 길을 택했다.

미국에 대한 환상의 모자를 벗어던질 힘이 없던 선생에게 있어서 그 길은 애국의 길이라고만 생각되었던 것이다.

본사기자 김영진

절세위인들과 총련

《강령적서한관철을 위한 전형창조운동》 개시

—총련본부위원장회의 제25기 제1차회의 도요에서 진행—

총련본부위원장회의 제25기 제1차회의가 얼마전 일본 도요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었다.

허충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박구호 제1부부장 겸 조직국장, 남승우, 배진구, 조일연, 송근학, 서충언부부장, 재경위원회 위원장, 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 상임위원들, 총련본부위원장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총련중앙 참사, 부국장, 중앙감사위원들이 방청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가 장막되었다.

허충만 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박구호 제1부부장 겸 조직국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 하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5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강령적서한 《각계각층 동포군중의 무궁한 힘으로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는 우리 국가체제주의시대,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기에 들어선 위대한 김정은시대 재일조



신인운동의 불멸의 백과전서이며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승리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한 최후의 설계도, 실천강령이라고 격찬하였다.

그는 이번 회의의 목적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강령적서한을 어김없이 관철하기 위한 일대 군중운동을 벌릴데 대하여 토의결정하고 전조직이 서한관철에 총력기해나서도록 하는데 있다고 말하였다.

총련은 《강령적서한관철을 위한 전형창조운동》을 전조직적인 대중운동으로 벌릴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그는 운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기본고리는 모든 조직, 전체 일군들과 비전일성자들을 주역이라 내세우고 그들이 자신들의 결심에 따라 운동을 주동적으로 벌려나가는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본부위원장들이 전행창조에서 사상적종자와 기본주제를 정확히 틀어쥐고 운동을 전개해나가야 한다고 그는 밝혔다.

오늘 본부위원장들에게 나선

기본과업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서한을 철저히 관철하여 우리 동포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총련중시, 동포사랑을 페부로 느끼도록 하는것이라고 그는 피력하였다.

그는 총련중앙과 본부위원장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커다란 정치적 신임을 신장에 깊이 새기고 기어이 서한관철에서 돌파구를 열어가기 위해 분투할것을 호소하였다.

이어 총련본부위원장들의 토론이 있었다.

허충만의장이 회의결속을 하였다.

의장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서한에서 가르쳐주신대로 총련과 동포들의 혼연일체, 총련부흥을 이룩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힘이라는것을 명심하고 혁명적기백과 조직정치사업으로 동포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켜 서한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기어이 새로운 경험, 새로운 전형을 창조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의 보고를 드리라고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적대세력들의 도발을 단호히 짓뭇개버리며 (9)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한 무력간섭을 통하여 기고만장해진 미군부는 1998년에 들어와 북정전쟁준비가 완료되었다는것을 시사하는 완고한 《북조선으로 쳐들어갈것을 예견한 새로운 전쟁계획을 완성하였다.》는 보도와 함께 제2의 조선침략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27》을 제3국의 출판물을 통해 공개하면서 공화국을 위협하였다.

《작전계획 5027》은 미군과 남조선군이 공화국을 《선제공격》하여 《붕괴시키는것을 목적》으로 한 극히 침략적이고 모험적인 전쟁계획이었다.

미국은 이 계획을 맹전말기에 《남침격퇴》형으로 짜놓았다가 맹전종식후에 《북진통일》형으로 수정해 놓고 철저한 비밀에 붙이고있었다. 이러한 《작전계획》을 공개한것은 공화국을 위협공갈하며 저들과의 대결과 협력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일종의 최후통첩이었다.

같은 해 11월하순 남조선에 기여든 미국대통령은 전례없이 남조선장군 미군부대들의 동원상대와 비핵재의 출동준비상대까지 최종점검하면서 《미국은 미국인과 우방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할 각오가 되어있으며 능력도 있다.》고 장담하

었다. 때를 같이하여 합동참모본부의장을 비롯한 미국방성 우두머리들과 록헤공군 3성군사령관들, 7함대 사령관, 1, 3해병원정부대 사령관 등이 번갈아가며 남조선에 기여들어 전쟁모의를 거듭하였고 여러가지 명칭을 단합동군사연습을 대대적으로 벌리었다.

평화나 전쟁이나, 화해나 대결이나, 누가 먼저 굽어들것인가.

세계가 숨을 죽이고 조선반도의 사태를 주시하고있던 주제 87(1998)년 11월하순 어느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단호한 어조로 적들이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암살하려고 한다며 지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 《작전계획 5027》의 침략성을 폭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여야 하겠다고, 성명에서는 바로 《작전계획 5027》에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야망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내용으로 침략전쟁에 환장한 된 미제국주의자들을 강경하게 때려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침략자들은 무주공산의 신세를 절대로 면치 못할것이다.》

이것은 적들의 굽소를 친 명중탄, 그야말로 초강경, 초고압으로 일관된 성명이었다.

총참모부 대변인성명은 결코 종이장우에 쓴 빈말이 아니었다. 세계사전문가들은 《핵전쟁공격능력은 미국만 있는것이 아니다.》라는 부의 주장이 무시할 일란은 아니라고 하면서 총참모부 대변인성명의 현실적인 군사적단보에 대하여 미국에 경고하였다.

북단같은 12.2성명이 나가자 미국은 너무나 치명적인 일격에 넋을 잃은듯 짝소리 한마디 내지 못했다.

한마디 내지 못했다. 그러나 미국의 위주습에 급급하였다. 《큰 산이 울어서 보니 겨우 들리 한마디》라는 말이 있지만 세계를 울리는듯싶던 미국의 《작전계획 5027》을 통하여 저들을 정치군사적근경으로 몰아넣는 결과만을 가져왔던것이다.

단 한장의 성명문에 의하여 공화국을 《선제공격》하여 지배하려던 미국의 전쟁계획은 물거품으로 되고말았다.

김영음

한 환장의 성명문에 의해 불거름이 된 미국의 전쟁계획

《불을 불로 다스리는것은 우리 혁명군대의 기질이 며 고유한 대응방식이다.》

미제는 어리석게도 저들의 무모한 작전계획을 내뉘는것으로 그 누구의 기를 꺾어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망상이다.

우리에게는 우리 식의 작전계획이 있다. 《외과수술식》 타격이니, 《선제타격》이니 하는것들은 결코 미국의 선택책이 아니며 그 타격방식도 결코 미국의 독점물이다.

... 불과 불이 오가는 전쟁마당에서 《5027 작전계획》의 실행을 주도하는 미제침략군 뿐 아니라 ... 위에서 기치를 제공하거나 심부름을 하는 일본을 비롯한 온갖 어중이 떠중이들모두가 우리의 타격목표로 된다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삼나라족속들에게 침략의 길안내를 해주는 매 북 배 족 척 행 위

남조선에서 일본것들과의 《안보협력강화》에 열을 올리고있는 윤석열역적패당에 대한 각계의 비난이 고조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윤석열역적패당은 조선통태상에서 일본것들과 연합반잠수함훈련을 비롯한 군사훈련을 련이어 벌려놓는데 이어 일본수상과의 전화대화에서 그 무슨 《군건한 안보협력강화》에 대해 제쳐냈다.

《안보협력》의 외피를 쓴 용납 못할 친일매국배족적당들이 아닐수 없다.

일본이 우리 나라를 40여년간이나 강점하고 악독한 식민지통치로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공주대천의 원수, 반도시 피의 대가를 빚어내야 할 친일매국배족적당들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파렴치한 일본은

매망 80년이 가까와오는 지금 이 시각까지도 저들이 저지른 친인공노할 과거죄악에 대해 인정도, 사죄도 하지 않고 오히려 독도를 제방이 라고 우기대면서 군국주의침착태에 현안이 되어 날뛰고있다.

일본방위성것들이 2023년도 방위예산을 역대 최대규모로 책정하면서 지상대해상미사일인 사거리를 우리 나라와 주변나라의 연안지역에까지 도달할수 있도록 대폭 늘이고 이를 함선과 비행기에도 장착할수 있도록 개조하며 극초음속미사일개발과 장거리공중대지상미사일, 합동터미널사도임에 막대한 자금을 할당할것만 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최근 일본것들이 요란스럽게 떠는 《북조선 핵 및 미사일위협》이라는것도 저들의 군사대국화책동의 명분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땀땀, 맹전시기부터 반잠수함능력을 축적하고 발전시켜온 일본이 참가한 연합훈련은 큰 도움이 된다느니 하는 여론을 내뉘리다 못해 남조선 각계의 반발 《북의 논리에 따른 반일선순》으로 매도하고있다. 하지만 그 어떤 궤변으로도 저들이 저지른 엄청난 친일매국범행을 감출수 없는 법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이야말로 동족대결과 망해가는 저들의 운명을 지탱하기 위해서라면 천년속적과도 꺼리낌없이 결탁하고 민족의 운명을 도마 위에 올려놓는것도 서슴없는 민족반역의 무리이다.

동족대결에 환장하여 매국배족행위를 일삼고있는 윤석열역적패당은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수 없다.

본사기자 박병방



한미일군사동맹 적극 동조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